

# 여가스포츠활동 유형별 여가제약 분석

## Investigation of Leisure Constraints based on Types of Leisure Sports Activities

황선환\*, 한승진\*\*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정보학과\*,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Sun-Hwan Hwang(shhwang@uos.ac.kr)\*, Seung-Jin Han(rotchan@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여가활동 중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가스포츠활동의 참가를 유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여가스포츠활동 유형을 개인종목, 대인종목, 단체종목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총 28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여가제약은 시설환경, 부정인식, 여건부족, 부상위험, 시간부족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여가제약 요인 중 시설환경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인식요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스포츠활동 참가정도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는 부정인식요인, 여건부족요인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는 시설환경요인, 부정인식요인, 여건부족요인, 부상위험요인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가스포츠활동 참가 정도와 유형에 따라 여가제약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맞춤형 여가제약 협상에 대한 연구들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미래 여가사회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중심어 : | 여가활동 | 여가제약 | 여가스포츠활동 | 여가스포츠활동 유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isure constraints based on the types of leisure sports activity(individual, partner, and group activities) in order to lead people to participate in and to continue their leisure sports activ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leisure sports participants in Seoul and Kyungki province. A total of 286 respondents were selected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Leisure constraint's sub-dimensions for the respondents were named as facility and environment, negative perception, lack of condition, risk of injury, and lack of time.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respondents felt facility and environmental constraint the most and negative perception constraint the lowest.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negative perception and lack of condition constraints based on the magnitude of participation. Finally,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ility and environment, negative perception, lack of condition, and risk of injury constraints based on the types of leisure sports activity.

■ keyword : | Leisure Activity | Leisure Constraints | Leisure Sports Activities | Types of Leisure Sports Activity |

\* 본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신진교수연구지원)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0-332-G00104)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접수번호 : #120704-003

접수일자 : 2012년 07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8월 21일

교신저자 : 한승진, e-mail : rotchan@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일 것이다.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가 활동이다. 여가가 단순히 일하고 남는 시간이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나아가 삶의 목적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여가활동조사[6]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은 건강(24.6%), 대인관계 및 교제(21.4%), 마음의 안정과 휴식(18.1%), 개인의 즐거움(16.7%), 스트레스 해소(7.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여가활동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민들의 주된 여가활동 유형 중 스포츠활동은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희망하는 여가활동 중 스포츠활동은 24.9%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의 4명 중 1명이 스포츠활동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실제 스포츠활동 참여와 스포츠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의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스포츠활동 참가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가활동, 그 중에서도 여러 원인 때문에 참가할 수 없는 여가스포츠활동에 대한 제약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여가제약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여가제약이란 모든 개인들이 여가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어려움이나 방해요인이다. 여가제약은 약 30년 동안 여가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여가제약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개인적, 대인적, 그리고 구조적 여가 제약이다. 개인적 여가 제약은 개인에게 내재된 여가 참가 방해요소로서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특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스트레

스, 갈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인적 여가 제약은 개인간의 상호작용 또는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제약으로 배우자 또는 같은 활동에 참가하는 적절한 동반자가 이에 해당된다. 구조적 여가 제약은 개인적/대인적이지 아닌 외적인 제약으로 경제적 조건, 계절, 기후, 정보의 유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초기의 여가제약 연구는 여가제약이라는 것이 여가활동 참여와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여가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여가제약 협상'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여가제약은 협상이나 노력을 통하여 극복 가능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43]. 이처럼 여가활동 참여를 결정짓는 요인은 여가제약의 여부가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상전략의 수용 여부라는 이론[36]이 제기됨에 따라 여가제약은 여가활동 참가와 지속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여가제약과 여가제약 협상 관련 연구들도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가제약과 협상 관련 연구들을 크게 여가제약과 여가제약 협상 전략의 관계 규명 연구와 여가제약 요인이나 원인 분석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여가제약과 여가제약 협상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가제약이 여가제약 협상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여가제약이 증가할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17][19][23][24][34][39][40]. 둘째는 여가제약이 여가제약 협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인지된 여가제약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제약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약해진다는 연구결과이다[4][25]. 셋째로 여가제약과 여가제약 협상전략은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이다[26][47][48].

여가제약 원인 분석 연구들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특히 생애주기별, 성별, 특수집단, 여가스포츠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청소년, 대학생, 중년, 노인의 여가제약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다[1][7][8][11][15][33][38][44]. 특수집단에 대한 연구들은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운동선수,

장애인, 소수민족 등이 많았으며 이들에 대한 여가활동 참여시 나타나는 여가제약을 분석한 내용이었다 [3][5][10][14][21][22][42][49]. 여가스포츠활동에 대한 여가제약 연구들은 골프참가자나 여가스포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성골프참가자의 여가제약 원인과 기혼여성의 여가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을 분석하였다 [13][15][20].

위와 같이 여가제약의 두 가지 흐름을 고찰해본 결과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이 나타난다. 여가제약과 여가제약 협상 간의 관계 연구들은 여가제약이론을 단순모형에서 여가제약협상전략이론의 역동적인 모형으로 진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반적인 여가제약 척도를 검증하거나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가제약의 원인규명에 대한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이다[19]. 또한 여가제약 원인 분석 연구들은 특정 대상이나 활동에 치우친 나머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대상이나 여가활동에 대한 여가제약을 분석한 연구들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는 반면, 보편적 여가제약 [16] 척도는 여가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차이를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들어난다. 이러한 두 가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가스포츠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을 규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로서 여가스포츠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여가제약 협상 전략을 제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두에 기술한 대로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스포츠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실제 국민들이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여가스포츠활동에 대한 다양한 여가제약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여가스포츠활동을 개인, 대인, 단체로 분류한 후 여가제약을 개인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31]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분석한다면 각 유형별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여가활동 중에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가스포츠활동의 참가를 유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여가스포츠활동 유형을 개인종목, 대인종목, 단체종목으로 분류한 후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가스포츠활동의 여가제약 협상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실제 여가스포츠활동 참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여가스포츠활동 참가자의 여가제약 요인은 무엇인가?
- 둘째, 여가스포츠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 셋째, 여가스포츠활동 유형별(개인, 대인, 단체) 여가제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서울지역 일반인 중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서울-경기 지역의 일반인 중 여가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303명을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하여 설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응답된 303부의 설문 중에서 불성실한 답변이나 미 응답한 17부를 제외한 총 286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가스포츠활동 참여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성	171	59.8
	여성	115	40.2
연령	10대	21	7.3
	20대	115	40.2
	30대	58	20.3
	40대	75	26.2
	50대	17	5.9

결혼 여부	미혼	171	59.8
	기혼	115	40.2
한달 비용	10만원 미만	152	53.1
	10-15만원	52	18.2
	15-20만원	33	11.5
	20만원 이상	49	16.8
참여 기간	1년 미만	48	16.8
	1-3년	57	19.9
	3-5년	43	15.0
	5-10년	76	26.6
	10년 이상	62	21.7
참여 빈도	1회이하	80	28.0
	2-3회	156	54.5
	4-5회	50	17.4
참여 강도	60분이하	33	11.5
	60-90분	71	24.8
	90-120분	95	33.2
	120분 이상	87	30.4
활동 종목	개인운동	152	53.2%
	대인운동	59	20.6%
	단체운동	75	26.2%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성 171명(59.8%), 여성 115명(40.2%)이었고, 연령은 20대 115명(40.2%), 40대 75명(26.2%), 30대 58명(20.3%)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 171명(59.8%), 기혼 115명(40.2%)로 나타났으며 한달에 여가스포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10만원 이하 152명(53.1%), 10-15만원 52명(18.2%), 20만원 이상 49명(16.8%)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기간은 5-10년 76명(26.6%), 10년이상 62명(21.7%), 1-3년 57명(19.9%), 1년미만 48명(16.8%), 3-5년 43명(15.0%)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빈도는 1주일에 2-3회 156명(54.5%), 1회이하 80명(28.0%), 4-5회 50명(17.4%)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강도에서는 1회활동시간이 90-120분 95명(33.2%), 120분이상 87명(30.4%), 60-90분 71명(24.8%), 60분이하 33명(11.5%)순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종목에서는 골프, 수영, 스키, 조깅, 헬스와 같은 개인운동과 테니스, 배드민턴과 같은 대인운동, 농구, 축구, 야구, 배구와 같은 단체운동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빈도는 개인운동 152명(53.2%), 단체운동 75명(26.2%), 대인운동 59명(20.6%)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여가제약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여가제약의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최종 5개요인 23문항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 여가제약 척도

연구자		척도
국내	고수민(1998)	6개요인 21문항
	송원익(2003)	3개요인 67문항
	이홍구, 김경식(2005)	7개요인 23문항
	지현진, 이철원(2003)	8개요인 24문항
	Alexandris & Carroll(1997)	25문항
국외	Alexandris, Funk, & Pritchard(2011)	12문항
	Burns & Gradfe(2007)	17문항
	Crompton & Kim(2004)	11문항
	Jackson & Henderson(1995)	20문항
	Jackson & Rucks(1995)	8개요인 100문항
	McGuire(1984)	30문항
	Raymore et al(1993)	3개요인 21문항
	Scott & Mowen(2010)	15문항
	Walker, Jackson, & Deng(2007)	17문항
	White (2008)	12문항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표 2]와 같이 국·내외 여가제약 관련 논문에서 사용된 여가제약 척도(국내 4편, 국외 12편)를 바탕으로 국내 척도는 내용 검토를 하였으며 국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번안과 역번안 과정을 거쳐 내용 검토를 하였다.

전체 문항 중에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동일 문항과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여 총 82문항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체 9개요인의 34문항으로 예비 문항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34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에 내재하는 차원을 찾아냄으로써 변수들 간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인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중에서 최대우도법(maximum-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요인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요인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공유값을 토대로 부적절한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3번의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유치가 .50이하로 나타난 문항은 삭제하였다. 또한 스크리(scree)검사 및 요인 부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5개 요인 23문항을 선정하였다. KMO 지수는 .872로서 5요인 모델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도 카이제곱이 4248.300이며 p<.001로서 변수 간 상관이 0이라는 영가

표 3. 여가제약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문 항목(평균)	구성개념(요인)					
	1	2	3	4	5	
72. 내가 편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설이나 공간이 없다.	.856	.018	.122	.070	.066	
73.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안전시설이나 환경이 부족하다.	.850	.112	.108	.087	.019	
74. 내주위의 가까운 곳에서 여가활동을 즐길만한 곳이 없다.	.841	-.020	.141	.041	.042	
70. 여가시설의 수준이 낮다.	.788	.101	.032	.023	.052	
69. 접근처나 직장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다.	.782	.097	.048	.046	.041	
71.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복잡하다.	.685	-.035	.012	.096	.031	
22. 여가활동을 통하여 만족감, 행복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065	.849	.079	.057	.101	
20. 여가활동을 하는 데 나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031	.743	.144	.239	.098	
23. 여가활동이 나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043	.729	.131	.179	.103	
19. 여가활동을 하는 데 성적 차별을 받는다.	.035	.708	.192	.067	.116	
45. 여가활동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057	.691	-.002	.052	.247	
14.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든다.	.088	.556	.258	.335	.056	
40. 직장이나 가사일 때문에 여가활동을 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	.108	.027	.814	.059	.271	
38. 직장일이나 가사일 때문에 피곤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없다.	.130	.358	.730	.083	.019	
24. 내 사회 상황이 여가를 즐길만한 상태가 아니다.	.064	.167	.699	.020	.293	
39. 취업불안이나 실업으로 인해 여가를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다.	.158	.163	.642	.164	.139	
15. 여가활동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다칠 생각을 하면 두렵다.	.070	.115	.167	.832	.082	
8. 여가활동을 하다가 다칠까 걱정이 된다.	.150	.126	.026	.766	.123	
9. 여가활동에 대해 적절한 경험이나 나쁜 기억이 있다.	.028	.274	-.090	.624	.051	
16.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결정을 해야 한다.	.072	.157	.384	.608	.066	
41. 부모님을 돌봐 드려야 하므로 여가활동 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	.073	.191	.216	.092	.793	
42. 경조사 등에 참여로 여가활동을 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	.011	.105	.187	.171	.784	
50. 친구가 가족을 돌보아야 하므로 나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기 어렵다.	.111	.174	.165	.058	.682	
고유치	4.009	3.577	2.648	2.387	2.041	
설명변량(% variance)	17.430	15.551	11.512	10.378	8.872	
누적변량	17.430	32.980	44.492	54.870	63.743	
신뢰도	전체신뢰도 .888	.897	.854	.805	.759	.752
요인명	시설 환경	부정 인식	여건 부족	부상 위험	시간 부족	

설을 기각함으로써 변수 간 선형적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최종 5요인 23문항에 대한 요인 부하량과 고유치 및 설명변량과 누적변량의 비율은 앞의 [표 3]과 같다. 전체 5개 요인은 전문가 의견과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각각 '시설환경', '부정인식', '여건부족', '부상위험', '시간부족'으로 명명하였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752 - .897로 나타났다.

'시설환경' 요인은 여가참여 시설이나 환경적인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정인식'은 여가참여 자체가 자신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여건부족'요인은 여가생활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자신의 위치나 동반자, 가족에게의 미안함 등 제반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 '시간부족'요인과 '부상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처리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내용이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시키고 SPSS 18.0 for Windows 과 AMOS 18.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참여 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2)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 분석(Cronbach's α 산출)을 실시하였다.
- 3)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제약 변인의 차이, 여가스포츠활동 참가유형과 여가제약 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LSD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여가제약 변인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여가제약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는 다음 [표 4]와 같다.

전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여가제약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설환경요인(M=2.71, SD=0.8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건부족요인(M=2.25, SD=0.78), 시간부족요인(M=2.09, SD=0.70)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상위험요인(M=2.08, SD=0.76)과 부정인식요인(M=1.69, SD=0.6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단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인	시설환경	부정인식	여건부족	부상위험	시간부족
시설환경	1				
부정인식	.173**	1			
여건부족	.274**	.468**	1		
부상위험	.256**	.493**	.474**	1	
시간부족	.181**	.392**	.471**	.413**	1
평균	2.71	1.69	2.25	2.08	2.09
표준편차	0.87	0.60	0.78	0.76	0.70

\*\*p<.01

#### 2. 여가스포츠 참가 정도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참가 정도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참여기간별 여가제약 차이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제약의 하위요인인 ‘시설환경’, ‘여건부족’, ‘부상위험’, ‘시간부족’은 유의수준 .05에서 각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인식’ 요인에서는 F=5.542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별 차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후분석(LSD)을 실시한 결과 1년 미만(1.99)이 각각 1-3년(1.63), 5-10년(1.63), 10년 이상(1.50)에 비해 ‘부정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5년(1.82)은 10년 이상(1.50)에 비해 ‘부정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참여빈도별 여가제약 차이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제약의 하위요인인 ‘시설환경’, ‘부상위험’, ‘시간부족’은 유의수준 .05에서 각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인식’ 요인에서는 F=3.062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별 차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후분석(LSD)을 실시한 결과 1회 이하(1.82)가 2-3회(1.62)에

표 5. 여가스포츠활동 참가자의 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

구분	사례수	여가제약										
		시설환경		부정인식		여건부족		부상위험		시간부족		
		M	SD	M	SD	M	SD	M	SD	M	SD	
참여기간	1년 미만(1)	48	2.70	0.80	1.99	0.73	2.50	0.84	2.23	0.80	2.26	0.73
	1-3년(2)	57	2.55	0.84	1.63	0.58	2.18	0.66	1.99	0.72	1.97	0.63
	3-5년(3)	43	2.65	0.91	1.82	0.53	2.22	0.78	2.16	0.76	2.05	0.69
	5-10년(4)	76	2.82	0.94	1.63	0.53	2.22	0.79	2.12	0.80	2.12	0.75
	10년 이상(5)	62	2.77	0.87	1.50	0.56	2.18	0.80	1.93	0.70	2.01	0.70
	F값		.900		5.542***		1.482		1.411		1.344	
	LSD				1)2,4,5 3)5							
참여빈도	1회이하(1)	80	2.81	0.86	1.82	0.66	2.46	0.84	2.19	0.85	2.16	0.71
	2-3회(2)	156	2.66	0.86	1.62	0.56	2.20	0.73	2.03	0.72	2.08	0.70
	4-5회(3)	50	2.70	0.89	1.72	0.61	2.07	0.75	2.04	0.72	1.94	0.68
	F값		.701		3.062*		4.888**		1.237		1.445	
	LSD				1)2		1)2,3					
참여강도	60분이하(1)	33	2.52	0.82	1.85	0.68	2.47	0.93	1.98	0.83	2.19	0.70
	60-90분(2)	71	2.67	0.70	1.93	0.64	2.41	0.71	2.28	0.72	2.13	0.63
	90-120분(3)	95	2.65	0.92	1.63	0.55	2.16	0.72	1.98	0.69	2.09	0.72
	120분 이상(4)	87	2.87	0.94	1.51	0.52	2.13	0.80	2.05	0.82	2.00	0.74
	F값		1.746		8.057***		3.015*		2.381		.773	
LSD				1)4 2)3,4		1,2)3,4						

\*p<.05, \*\*p<.01, \*\*\*p<.001

비해 ‘부정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건부족’ 요인에서는 F=4.888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별 차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후분석(LSD)을 실시한 결과 1회 이하(2.46)가 각각 2-3회(2.20), 4-5회(2.07)에 비해 ‘여건부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참여강도별 여가제약 차이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제약의 하위요인인 ‘시설환경’, ‘부상위험’, ‘시간부족’은 유의수준 .05에서 각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인식’ 요인에서는 F=8.057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별 차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후분석(LSD)을 실시한 결과 60분 이하(1.85)가 120분 이상(1.51)에 비해 ‘부정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90분(1.93)은 각각 90-120분(1.63), 120분 이상(1.51)에 비해 ‘부정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건부족’ 요인에서는 F=3.015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별 차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후분석(LSD)을 실시한 결과 60분 이하(2.47)와 60-90분(2.41)이 90-120분(2.16), 120분 이상(2.13)에 비해 ‘여건부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여가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제

약 차이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제약의 하위요인인 ‘시간부족’은 유의수준 .05에서 각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선 ‘시설환경’ 요인에서는 F=2.44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별 차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후분석(LSD)을 실시한 결과 단체종목(2.88)이 개인종목(2.56) 비해 ‘시설환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인식’ 요인에서는 F=2.18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별 차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후분석(LSD)을 실시한 결과 개인종목(1.76)이 단체종목(1.58) 비해 ‘부정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건부족’ 요인에서는 F=4.365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별 차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후분석(LSD)을 실시한 결과 개인종목(2.37)이 각각 개인종목(2.09), 단체종목(2.12)에 비해 ‘여건부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위험’ 요인에서는 F=4.714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별 차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후분석(LSD)을 실시한 결과 개인종목(2.20)이 각각 개인종목(1.89), 단체종목(1.97)에 비해 ‘부상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본 연구는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제약 요인과 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적인 연구 결과는 여가제약이 여가활동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18][23][27][29][47]

표 6. 여가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

구분	사례수	여가제약												
		시설환경		부정인식		여건부족		부상위험		시간부족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활동 유형	개인종목(1)	152	2.69	0.82	1.76	0.65	2.37	0.80	2.20	0.77	2.15	0.71	2.30	0.47
	대인종목(2)	59	2.56	0.80	1.66	0.54	2.09	0.74	1.89	0.72	2.00	0.68	2.12	0.48
	단체종목(3)	75	2.88	0.99	1.58	0.54	2.12	0.73	1.97	0.72	2.01	0.69	2.19	0.50
	전체	286	2.71	0.87	1.69	0.60	2.25	0.78	2.08	0.76	2.08	0.70	2.20	0.49
	F값		2.441*		2.186*		4.365*		4.714**		1.438		3.324*	
	LSD		3)2		1)3		1)2,3		1)2,3				1)2	

\*p<.05, \*\*p<.01

[48]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여가제약 연구의 주요 흐름인 단순 관계 모델이나 역동적인 모델에 대한 관계 연구를 탈피하여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실질적인 여가제약 요인과 참여 유형에 따른 집단별 여가제약 요인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실질적인 여가제약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세부 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가 여가제약을 많이 느끼는 요인은 시설환경적 요인, 여건부족 요인, 시간부족 요인, 부상위험 요인, 부정인식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스포츠활동 비참여 집단이 느끼는 제약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6]의 결과를 보면 여가스포츠활동 비참여의 요인으로 ‘시간부족’과 ‘자신의 게으름’, ‘경제적 부담’ 등의 개인적 요인을 제시한 반면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시설이나 환경’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와 비참여간 느끼는 여가제약은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여가스포츠활동을 꾸준히 지속시켜주기 위해서는 공공 스포츠 시설과 환경을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여가스포츠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는 참여 기간, 참여 빈도, 참여 강도에서 동일하게 참여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부정인식’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빈도와 참여 강도에서는 ‘여건부족’ 요인이 부분적으로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스포츠활동 참여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여가스포츠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가스포츠활동 참여 정도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제약 요인은 구조적이나 대인적인 제약보다는 개인적인 제약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참가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가제약 요인은 복합적이다[12][35]라고 하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여가스포츠활동 참여 수준

을 높이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의 필요성이나 유익성을 홍보하여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여가스포츠활동 유형별 여가제약 요인에 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단체운동이 시설이나 환경적인 제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종목의 특성상 활동 공간이 넓으며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여가활동조사[6]에서 여가스포츠활동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단체운동인 ‘구기종목(31.4%)’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체종목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다음으로 개인종목은 부정인식 요인과 여건부족 요인, 부상위험 요인에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종목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종목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가장 먼저 참여하는 활동 유형이며, 우리나라 생활체육 참여 인구 중 가장 많은 활동이 걷기와 조깅과 같은 개인종목 활동이다. 여가스포츠활동으로 개인종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약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 스스로가 동호회나 클럽에 참여하거나 올바른 지도를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여가스포츠활동과 관련된 모든 단체와 기관에서는 참가자의 여가제약 요인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가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의 요인과 집단별 차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서울 지역의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 28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일원변량분석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여가제약 요인 중에



서 시설환경 요인, 여건부족 요인, 시간부족 요인, 부상 위험 요인, 시간부족 요인 순으로 여가제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참여 정도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는 참여기간, 참여빈도, 참여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참여기간에서는 여가제약의 '부정인식 요인'에서 참여기간이 짧은 집단이 긴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빈도에서는 '부정인식 요인'과 '여건부족 요인'에서 참여빈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강도에서는 '부정인식 요인'과 '여건부족 요인'에서 참여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는 '시간부족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설환경 요인'에서는 단체종목이 개인종목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인식 요인'에서는 개인종목이 단체종목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건부족 요인'에서는 개인종목이 각각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위험 요인'에서는 개인종목이 각각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로 제한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유사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활동 유형별로 여가제약 구성 요인과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 활동유형에 따른 집단별 여가제약 요인을 바탕으로 각 여가스포츠 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제약 협상 요인을 추출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제약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실용학문이 여가학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강경환, "남자고등학생의 여가제약 및 사회적지지 지각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9권, 제1호, pp.331-339, 2010.
- [2] 고수민, *교사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998.
- [3] 권유홍, 고훈찬, "결혼이민여성의 여가제약과 발생원인 고찰", 관광연구논총, 제23권, 제1호, pp.27-48, 2011.
- [4] 김경식, "사회체육 참가자의 여가제약 극복 과정 구조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2권, 제1호, pp.61-76, 2009.
- [5] 김종호, 권순용, 이연주, 한승진, "주한 외국인 유학생 스포츠 참가자의 여가제약 요인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4권, 제3호, pp.207-215, 2010.
- [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0.
- [7] 박지수, 박경란, "중년후기 성인이 지각하는 여가제약 및 여가충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3호, pp.689-703, 2009.
- [8] 백원칠, 송은일, "직장여성의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 및 여가전문화와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4권, 제4호, pp.137-146, 2010.
- [9] 송원익, *도시근로자의 여가참여형태 및 제약이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03.
- [10] 윤성엽, 임진선, 이철원, "남자대학생 운동선수가 경험하는 여가 제약", 여가웰니스학회지, 제2권, 제1호, pp.13-25, 2011.
- [11] 이영숙, 박경란, "노인의 여가제약, 여가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1호, pp.1-12, 2009.
- [12] 이홍구, 김경식, "여가제약과 사회체육 참가: 정책적 함의",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8권, 제1호, pp.49-64, 2005.

- [13] 전태준, “남성 골프참여자들의 여가제약과 협상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1권, 제4호, pp.141-155, 2007.
- [14] 정승훈,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들의 여가제약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제24권, 제3호, pp.53-75, 2010.
- [15] 지현진, “기혼여성의 여가스포츠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0권, 제3호, pp.17-26, 2006.
- [16] 지현진, 이철원, “보편적 여가제약 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5호, pp.441-449, 2003.
- [17] 최성범,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협상효능감, 여가동기, 여가제약, 여가협상 및 여가참여의 구조적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3권, 제4호, pp.145-156, 2009.
- [18] 최성훈, 이석훈, 김동진, “서울소재 초등학교 체육특기적성활동 참여의 제약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4호, pp.359-376, 2007.
- [19] 최성훈,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직장인들의 여가동기와 여가제약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 협상 전략 분석”, 체육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pp.997-1010, 2010.
- [20] 최인석, “여가테크를 위한 골프참가자의 여가제약과 지속의도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4권, 제1호, pp.173-182, 2010.
- [21] 하동연, 허지영, “호텔 비정규직 종사원의 여가참여형태에 따른 차이분석: 여가만족과 여가제약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6권, 제2호, pp.423-442, 2011.
- [22] 홍경완, “중국인 유학생들의 여가제약연구”, 관광연구, 제24권, 제2호, pp.45-63, 2009.
- [23] 황선환,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여가참가의 관계: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 참가자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제20권, 제3호, pp.499-506, 2009.
- [24] 황선환, 서희진,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진지한 여가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제20권, 제2호, pp.298-307, 2009.
- [25] 황선환, 최홍석, 한승진,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 스키어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pp.974-983, 2010.
- [26] 황선환, 한승진, “여가제약효과완화 모델과 인지된 여가제약감소 모델 비교”,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4권, 제3호, pp.161-171, 2010.
- [27] K. Alexandris and B. Carroll, “Demographic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constraints on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Results from a study in Greece,” Leisure Studies, Vol.16, No.2, pp.107-125, 1997.
- [28] K. Alexandris, D. C. Funk, and M. Pritchard, “The Impact of Constraints on Motivation, Activity Attachment, and Skier Intentions to Continu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43 No.1, pp.56-79, 2011.
- [29] K. Alexandris, C. Tsorbatzoudis, and G. Grouios, “Perceived constraints on recreational participation: Investigating their relationship with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34, pp.233-252, 2002.
- [30] C. R. Burns and R. A. Grafe, “Constraints to outdoor recreation: Exploring the effects of disabilities on perception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39, No.1, pp.117-124, 2007.
- [31] D. W. Crawford and G. Godbey,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Vol.9, pp.119-127, 2007.
- [32] J. L. Crompton and S. S. Kim, “Temporal Changes in Perceived Constraints to Visiting State Park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36, No.2, pp.160-182, 2007.
- [33] K. A. Henderson, L. A. Bedini, L. Hecht, and R. Schule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

-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tudies*, Vol.14, pp.17-31, 1995.
- [34] J. Hubbard and R. C. Mannell,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Vol.23, pp.145-163, 2001.
- [35] E. L. Jackson, “Leisure constraints: A survey of past research,” *Leisure Sciences*, Vol.10, No.3, pp.203-215, 1998.
- [36] E. L. Jackson, D. W. Crawford, and G. C. Godbey,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Vol.15, pp.1-12, 1993.
- [37] E. L. Jackson and K. A. Henderson, “Gender based analysis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Vol.17, pp.31-51, 1995.
- [38] E. L. Jackson and V. C. Rucks,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by junior-high and high-school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7, No.1, pp.85-105, 1995.
- [39] S. Lee and D. Scott, “The process of celebrity fan’s constraint negoti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41, No.2, pp.137-156, 2009.
- [40] A. Loucks-Atkinson and R. C. Mannell, “Role of self-efficacy in the constraints negotiation process: The case of individuals with fibromyalgia syndrome,” *Leisure Sciences*, Vol.29, pp.19-36, 2007.
- [41] F. McGuire, “A factor analytic study of leisure constraints in advanced adulthood,” *Leisure Sciences*, Vol.3, pp.134-326, 1984.
- [42] A. N. Moghaddam, K. A. Henderson, and R. Sheikholeslami, “Women’s leisure and constraints to participation: Iranian Perspectiv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39, No.1, pp.109-126, 2007.
- [43] A. Nadirova and E. L. Jackson, “How do people negotiate constraints to their leisure? Results from an empirical study,” *Abstracts of papers Presented to the Nin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1999.
- [44] L. A. Palen, M. E. Patrick, S. Gleeson, L. L. Caldwell, E. A. Smith, L. Wegner, and A. J. Flisher, “Leisure constraints for youth in Cape Town, South Africa: A qualitative study,” *Leisure Sciences*, Vol.32, No.5, pp.434-452, 2010.
- [45] L. Raymore, G. Godbey, D. Crawford, and A. Voney, “Nature and process of leisure constraints: An empirical test,” *Leisure Sciences*, Vol.15, pp.99-113, 1993.
- [46] D. Scott and A. J. Mowen, “Alleviating Park Visitation Constraints through Agency Facilitation Strateg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42, No.4, pp.535-530, 2010.
- [47] J. S. Son, D. L. Kerstetter, and A. J. Mowen, “Do age and gender matter in the constraint negotiation of physically active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40, pp.267-289, 2008.
- [48] J. S. Son, A. J. Mowen, and D. L. Kerstetter, “Testing alternativ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models: An extension of Hubbard and Mannell’s study,” *Leisure Sciences*, Vol.30, pp.198-216, 2008.
- [49] J. G. Walker, E. L. Jackson, and J. Deng, “Culture and leisure constraint: a comparison of Canadian and mainl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39, No.4, pp.567-590, 2007.
- [50] D. D. White, “A structur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on outdoor recreation,” *Leisure Sciences*, Vol.30, pp.342-359, 2008.

저 자 소 개

항 선 환(Sun-Hwan Hwang)

정회원



- 2008년 8월 : 미국 조지아대학교  
여가학 박사졸업
- 2010년 3월 ~ 현재: 서울시립대  
학교 생활체육정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여가사회학, 여가심리학, 여가경영, 청소년 캠프

한 승 진(Seung-Jin Han)

정회원



- 2003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  
육과(체육학 석사)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  
육과(체육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  
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여가제약, 여가교육, 여가프로그램, 행복, 몰입